

# 사회변동에 따른 제주지역 개신교회의 변화와 딜레마

## — 「바다교회」(가명) 사례를 중심으로

윤명희\*·김선필\*\*

- I. 들어가며
- II. 기존 연구 검토
- III. 제주사회변동과 개신교회의 변화
- IV. 제주지역 「바다교회」의 변화와 딜레마
- V. 나가며

### 국문요약

2000년 이후 제주사회는 국내 이주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급격한 변동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변동과 종교조직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제주사회변동이 제주지역 개신교회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이에 우리는 제주사회변동과 개신교회 성장과정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2000년 이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바다교회」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지역 개신교회는 제주사회변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둘째, 현재 제주지역 개신교회는 2000년 이후 제주로 이주해온 교인들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성장주의를 지향하는 일부 이주민 교인들이 주류세력으로 부상하면서, 개별교회

\* 제주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 수료(주저자).

\*\*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후연구원(교신저자).

확장이 교회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교인들 간의 갈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탈자본주의적 가치에 경도된 이주민들의 이주 동기와는 달리 종교 조직 내부에 나타난 일부 이주민 교인의 삶의 방식은 근대 자본주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바다교회」 사례는 2010년 이후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고 있는 제주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제주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함의를 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사회변동과 종교조직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점에서 종교사회학적인 함의 역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사회변동, 개신교, 제주도, 이주.

## I. 들어가며

2000년 이후 제주사회는 국내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제주 정착 인구의 증가 배경에는 국제자유도시로 상징되는 중앙·지방정부의 개발정책과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거부하며 탈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향이 혼재되어 있다.<sup>1)</sup> 이러한 인구증가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 난개발로 인한 자연파괴, 심각한 교통 체증과 생활쓰레기 처리난 등 제주사회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을 양산해내고 있다. 특히 기존 주민과 이주민 간의 충돌은 제주사회가 직면한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sup>2)</sup> 이렇듯 현재 제주사회는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 
- 1) 2010년 이후 제주지역 이주와 관련된 현황은 다음을 참고하라. 김민영·최현, 「제주도 이주의 현황과 전망」, 『耽羅文化』 50, 2015, 39~78쪽; 김정임·윤명희, 「제주영어로 육도시 지역주민의 생활실태」, 『耽羅文化』 55, 2017.
  - 2) 연합뉴스, “관광객 물리는 제주 ‘쓰레기 대란 막아라’ 비상” 2016년 8년 22일자; 오마이뉴스, “제주 이주민-원주민 갈등, 급기야 해너-다이버 충돌”, 2016년 5월 28일자; KBS뉴스, “난개발이 빚은 제주도의 슬픈 자화상”, 2016년 9월 15일자; 한겨레, “제주도 땅값이 치솟아 행복하십니까”, 2015년 1월 11일자.

한편 제주사회의 변동은 개신교회의 양적 성장과 외형적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주지역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전체 신자<sup>3)</sup>의 증가율은 최근 증가한 제주 인구의 수에 정비례하고 있다.<sup>4)</sup> 전국에서 가장 낮은 신자 비율을 보이던 제주지역 개신교계는 이와 같은 교회 성장 추세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주교회, 이젠 더 이상 ‘준선교지’가 아닌 선교하는 지역으로 새 차원의 역사를 쓰자”라는 2016년 제주 개신교계 언론의 헤드라인은 제주 개신교회의 달라진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sup>5)</sup>

제주 개신교회의 성장 과정은 급격한 제주사회의 변화 시기와 맥락을 같이 한다. 다시 말하면, 제주의 인구가 폭증하던 시기마다 개신교계 교인 수가 증가했다는 사실은 관련 문헌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sup>6)</sup> 1900년대 초반에 제주의 개신교는 제주로 온 타 지역민에 의해 조직화되고 제도화된 교회를 건립하였다. 6·25 전쟁시기와 직후에는 제주로 피난을 온 개신교 신자들이 제주의 농어촌지역에 정착하고 교회를 건설하면서 교세가 확장되었다. 제주의 산업화시기에는 국가 주도의 관광서비스 개발 산업이 성장하면서 제주로 대거 이주한 타 지역민에 의해 교회가 건축(또는 증축)되고, 개신교계 언론이 형성되었다. 이와 같이 사회변동에 따라 제주사회의 유입 인구의 폭증하던 시기와 맞물려 개신교 조직이 변화하는 것을 볼 때, 개신교회는 이주 현상으로 발생된 제주사회의 변동을 효과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연구대상으로 매우 적합하다.<sup>7)</sup> 더욱이 종교조직은 조직 확장을 위해 새로운 구성원을

- 
- 3) 이 글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믿는 사람을 뜻하는 용어를 ‘신자’ 또는 ‘교인’으로 사용할 것이다.
  - 4) 제주기독신문, 「예장통합 제주노회 전체 신자수 3만 5758명: 제주노회 ‘2015년도 교세통계표’ 발표…… 전년도 대비 1015명 증가.», 2016년 8월 27일자. 이 기사 내용은 예장통합 제주노회가 발표한 2015년 말 교세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다는 것이다. 제주 인구유입의 증가가 주요 증가 요인으로서, 2015년 12월말 제주도 인구가 3% 증가했듯이 제주노회 교세도 전년도에 비해 2.9%의 증가율을 보인다는 것이다.
  - 5) 제주기독신문, 「인구유입 따른 교세 자연증가 언제까지? 새 차원 복음 제시 등 교회정착을 높여야.», 2016년 1월 6일자.
  - 6)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주노회, 『제주기독교100년사』, 2015; 제주성내교회, 『제주성내교회100년사』, 2008; 제주성안교회, 『한국교회 첫 선교지, 살리는 공동체: 제주성안교회 100년사』, 2008.
  - 7) 이원규, “제5장 사회변동과 한국교회의 미래”,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의 위기와 희망』, kmc, 2010, 144~193쪽.

수용하는데 있어서 개방적이며, 기존 연구에서 보듯이 종교조직이 새로운 구성원의 적응과 정착에 있어서 중요한 매개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주와 종교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sup>8)</sup>

따라서 우리는 사회변동이 제주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제주지역 개신교회의 성장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제주지역 개신교회의 성장을 제주사회의 급격한 사회변동이 있었던 시기에 따라 검토하였다. 둘째, 2000년대 이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바다교회」의 사례를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제주사회변동과 제주지역 개신교회 관련 문헌들을 검토했으며, 사례분석을 위해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고 있는 제주사회의 한 단면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실태와 그 원인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제주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익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사회변동과 종교조직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점에서 종교사회학적인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 II. 기존 연구 검토

### 1. 한국 사회변동과 개신교회

한국의 사회변동과 개신교회에 대한 연구는 개신교회의 성장과 쇠퇴의 원인을 밝히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기서 교회 성장과 쇠퇴의 개념은 교인

8) 박노면, 「미주 한국인 사회의 문화구조」, 『교육학연구』 38(2), 2000, 65~77쪽; 김신열, 「종교 활동 참여가 미주 한인 노인들의 정신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5, 2004, 147~168쪽; 김운용, 「북미 한인교회의 공동체 형성과 예배와 설교의 역할에 관한 연구」, 『신학과실천』 28, 2011, 111~141쪽; 조발그니, 「종교공동체의 사회적지지 역할과 영국, 프랑스, 독일 유학생의 적응」, 『종교연구』 64, 2011, 247~280쪽; 조성운, 『창가학회와 재일한국인』, 한울, 2014; 박원석, 「런던지역 한인 이주민의 정착과정에서 한인네트워크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 2016, 102~119쪽.

의 수, 그리고 그 비율의 증감에 기초한 양적 변화를 의미한다.<sup>9)</sup> 특히 사회변동의 변인 가운데 하나인 인구요인은 한국 개신교의 성쇠와 깊은 관련이 있다. 김형길·김다니엘은 인구요인이 교회의 성쇠와 연관성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인구 절벽이 예측되는 현대사회에서 교회가 취해야할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sup>10)</sup> 또한 김성건은 한국의 인구 변동과 개신교회의 상관관계에 주목하면서, 급격히 감소한 출산율과 고령화로 인해 한국사회가 직면한 인구변동에 대한 교회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sup>11)</sup> 이처럼 한국의 사회변동으로 인한 인구 변화는 개신교 교인 수의 증감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편 한국 개신교회 성장의 원인을 자본주의와 개신교 교리의 친화성 속에서 찾는 연구들도 있다. 노치준은 한국 개신교회의 성장이 해방 후 강조된 서구화, 반공이데올로기, 경제성장으로 대표되는 근대주의와 개신교회의 결속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개신교 교인 수의 급속한 성장과 정체는 ‘개교회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강조한다. 개교회주의란 개별교회의 교인 수 확장 정책으로써, 한국사회의 압축적 근대화를 추동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교회 성장주의에 반영된 것이다. 산업화 이후, 한국 개신교회는 근대주의·개별교회 확장주의·물량주의 이념과 결합하면서 신자의 수를 증가시키는데 성공하였고, 사회변동에 따라 종교조직도 함께 변화하였다. 그가 보기에, 개교회주의가 주류를 이룬 한국 개신교회는 교회의 성장을 교회의 외형적인 크기와 교인 숫자 등으로 측정해왔다. 이러한 교회확장 정책은 일면 성공을 이룬 듯 보였지만, 그것이 정도를 넘어선 순간 개신교회는 사회적 공신력을 잃게 되면서, 개교회주의는 오히려 교회 성장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sup>12)</sup> 노치준의 주장을 적극 수용한 김성건은 한국의 메가처치(초대형교회)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메가처치는 주로 서울 수도권 지역의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그 규모는 가히 세계적이다. 한국에서 메가처치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미국식 번영의 복음과 한국의 무속적 전통 양자 사이에 ‘선택적 친화성’이 존재하기

9) 이원규, 「앞의 글」, 2010.

10) 김형길·김다니엘, 「한국 인구구조의 변화와 한국교회의 대응」, 『로고스경영연구』 14-4, 2016, 191~201쪽.

11) 김성건,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한국교회」, 『신학과 사회』 29(1), 2015, 77~106쪽.

12) 노치준, 『한국 개신교사회학: 한국 교회의 위기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1998, 11~40쪽.

때문이었다.<sup>13)</sup> 이정연은 종교시장론을 통해 자본주의를 내면화한 한국 개신교회의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했다. 그는 사례분석을 통해 개신교회가 물량주의와 성장주의, 다양화, 차별화를 통해 교인을 확충해왔다고 주장했다.<sup>14)</sup>

결국 우리는 기존연구들을 검토하면서 한국사회변동의 핵심 변수인 인구 변화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한국 개신교회의 성장과 쇠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sup>15)</sup> 따라서 제주의 개신교회의 성장과정을 검토하려면, 최근 제주사회의 이주현상을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제주사회의 변동시기와 맞물려 국내 인구가 제주로 유입되는 과정을 함께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 2. 제주사회변동과 이주 현상

제주의 인구 증가 현상은 제주의 구조적 변동시기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제주로 대거 피난민이 유입된 한국전쟁 이후 국내인의 대거 제주 이주는 제주지역의 개발정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주사회는 해방과 4·3 사건으로 자급자족의 경제 기반이 초토화된 상태에서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 발전에 편입되었다.<sup>16)</sup> 이러한 과정은 제주지역에 대한 중앙 정부의 개발정책을 통해 나타났다. 이상철은 제주의 개발정책이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국가 주도의 외생적 지역개발정책이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불균형 성장론을 기조로 하는 국가의 경제 개발정책의 첫 단계는 1963년 자유항 설정 구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제주는 국가 주도 하에 국제자유지역화를 염두에 두면서 관광산업과 감귤산업을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그러나 국제자유지역 조성계획 추진은 여러 여건상 불투명하여 관광을 기반으로 한 관광지 개발을 중심으로 하여 기본 계획이 축소되었다. 자유항 건설을 구상하며 추진 조

13) 김성건, 「고도성장 이후의 한국교회: 종교사회학적 고찰」, 『한국기독교와역사』 38, 2013, 5~45쪽; 「앞의 글」, 2014.

14) 이정연, 「도시화와 종교시장 : 1960-2000년대 창신동지역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2014년 봄호(통권101호), 226~257쪽.

15) 물론 종교가 사회변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사회변동이 종교에 미친 영향에 주목하고 있으므로,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16) 김철규,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과 사회 변동』,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33쪽.

치를 검토하던 1980년은 제2차 오일쇼크 등으로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시기였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정한 1999년은 IMF(국제 금융 지원) 외환 위기가 진행된 시기였다. 이후 제주는 급속하게 관광산업이 팽창하였고, 한국 경제에서 제주는 이국적인 관광의 섬으로서 분업적으로 통합되었다.<sup>17)</sup>

2000년대 이후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지정과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법」을 통해 고도의 자치권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정치적 측면에서는 민주적 지방 자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지만, 이것은 근원적으로 국가가 주도한 자본 축적 순환의 공간적 조정이라는 기획 하에 이뤄진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sup>18)</sup>

한편 2010년 이후 한국인이 제주로 이주하는 현상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회현상이다. 제주지역은 2010년을 기점으로 지난 5년 간 국내 정착 주민의 유입으로 인구가 폭증했는데, 이것은 세종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인구 순유입률이다.<sup>19)</sup> 제주의 인구 증가 현상은 제주시나 서귀포시와 같은 시 지역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읍면지역에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의 12개 읍면지역 중에 애월읍을 제외한 나머지 11개의 읍면지역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인구 감소가 계속되었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한림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까지 인구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sup>20)</sup>

이러한 이주 인구의 증가는 지역개발정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

17) 이상철, 「제주사회변동론 서설 - 개발정책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앞의 책, 1997, 273~311쪽; 동일저자, 「제주도 개발정책과 도민 태도의 변화」, 『제주사회론2』, 한울아카데미, 1998, 99~136쪽.

18) 김석준, 『도박사회학』,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6, 106~108쪽.

19) 한국은행 제주본부, 「인구 순유입이 제주지역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7년 7월, 2쪽. 제주지역은 전체인구 대비 순유입 규모는 16개 시도 중 최고 수준(2위)이며 이로 인해 전국에 비해 인구 증가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인구 순유입 규모는 세종시 137.8%, 제주 9.2%, 경기 3.7%, 충남 2.9%, 인천 2.7%, 충북 1.1% 강원 0.8% 등 순이다. 연령별로는 30~40대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 부혜진, 「귀농귀촌인구 증가에 따른 제주도 촌락지역의 변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2, 2015, 226쪽.

이다. 예를 들어, 제주지역 개발 사업이 활발했던 1960-80년대 산업화시기에는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지리적으로 가까운 광주·전남지역 출신들이 제주로 이주하였다.<sup>21)</sup> 그리고 2000년대에는 국제자유도시로 대표되는 중앙·지방정부의 개발정책으로 인해 여러 부류의 이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제주로 이동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지역개발정책과는 상관없이 자본주의 체제에 반하여 대안적인 삶을 지향하는 국내 정착 주민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의 인구 구성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이렇듯 이주 현상은 사회변동에서 비롯되지만, 이주민을 보내는 지역과 받아들이는 지역의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집합적인 행동이므로, 이주 현상은 지역의 사회변동을 추동하게 된다.<sup>22)</sup> 특히 이주 현상으로 인해 발생된 인구의 증감은 지역사회의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변동을 일으키는 주요 변수가 되기 때문에 요즘 각광받는 한국인의 ‘제주 이주’ 현상은 한국의 사회변동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그러나 국내 정착 주민의 증가로 인해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고 있는 제주 사회에 관한 기존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대부분 기존 지역주민을 배제하고 이주자를 특정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가 주류인데, 전반적으로 제주 이주 현황을 파악한 기초연구이거나 국내 정착 이주민 집단을 유형화하여 그 성격을 규정하려는 시도에 머물고 있다.<sup>23)</sup>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우리는 2000년 이후 이주민 증가가 불러온 제주사회변동의 양상과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종교조직, 특히 제주지역의 개신교회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21) 염미경, 「개발과 이주 그리고 주거지 분화 “해남촌” 사례를 통해서 본 제주사회 이주민 연구의 과제」, 『제주도연구』 35, 2011; 「산업화시기 제주 이주자들의 정착과정과 그 특성: 전라도 출신 이주자들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학』 16, 2015

22) 스티븐 카슬·마크 J. 밀러, 한국이민학회 옮김. 『이주의 시대』, 일조각, 2014, 52~53쪽.

23) 김민영·최현, 「앞의 글」, 2015; 김정임·윤명희, 「앞의 글」, 2017; 오윤정 외, 「제주지역 정착이주민의 생활만족도 및 삶의 질 변화 연구」,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4; 부혜진, 「앞의 글」, 2015.



### Ⅲ. 제주사회변동과 개신교회의 변화

3장에서는 급격한 사회변동이 있었던 제주사회의 시기별로 구분하여 제주 지역 개신교회의 성장과정을 검토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제주사회의 변동이 개신교회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1. 2000년대 이전 제주사회변동과 개신교회

개신교회가 제주에 진출한 시기는 대략 1900년대 초반이다.<sup>24)</sup> 제주도에 파견된 이기풍 목사는 제주에서 조선예수교장로회의 선교 정책 방향에 따라 근대 교육을 가장 먼저 시작하였다. 그는 1907년부터 1910년 2월까지 제주에서 귀양살이를 하던 박영호와 함께 제주에서 학교를 세웠다. 이후 제주 출신인 김재원, 조봉호 등 현지인의 자생적 신앙 모임과 협력하여 교육 활동을 하였고 금성리, 조천리, 일덕리 등에 교회를 설립하였다.<sup>25)</sup> 또한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가 제주에서 의료 선교를 하였는데, 적게는 15일에서 많게

24) 제주지역 개신교회 유입한 시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기풍 목사 즉, 성직자가 입도(入道)한 1908년을 시점을 보는 시각과 그 이전부터 자생적인 개신교 공동체가 존재해왔기 때문에 그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기풍 목사가 입도하기 전에 타지방에서 제주출신의 주민과 개신교의 접촉이 있었고 외국인 선교사의 제주 방문 또한 존재했었기 때문에, 제주지역 개신교회의 진출 시기를 1904년에서 1908년 사이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5) 대한예수교장로회제주노회, 『앞의 책』, 57~60쪽; 박정환 「앞의 글」, 2013. 제주 최초의 개신교회에 대한 논란은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 상권에서 출발한다. 이는 각 문헌마다 최초의 제주 개신교회 설립연도를 달리 기술한데에서 출발한다. 이 문헌에 따르면, 금성교회가 1908년에, 조천교회가 1909년에, 성내교회가 1910년에 설립되었다. 그러나 제주성안교회 선교기념비에는 1908년 2월에 제주성내교회가 설립되었다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논란이 촉발되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1928), 『제주선교70년사』(1978), 『제주노회사』(2000), 『제주교회총감』(2008), 『제주기독교신문사』(2008), 『제140회 제주노회 보고서』(2014) 등은 제주의 개신교회들의 창립 연대를 각기 다른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이들 각 자료는 자생적 신앙공동체를 교회로 보는 관점이 있는 반면에 교회 건물 혹은 예배 공간 확보가 기준이 되거나 해당 지역의 공공예배가 언제 시작되었고 정기적인 예배가 지속되었는가를 교회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 교회 설립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도 불구하고, 1908년 이기풍 목사의 입도로 인해 제주에 조직적이고 정기적인 예배를 하는 개신교회가 건립됐다는 사실은 모두 일치하고 있다.

는 두 달 동안 제주에 머물면서 제주 주민들의 질병을 치료하였다.<sup>26)</sup> 이러한 개신교의 교육과 의료 활동은 개신교보다 먼저 시작된 천주교의 포교 활동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의 거부감 없이 선교활동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sup>27)</sup> 1911년에서 1913년까지의 교회 출석교인 수를 집계한 기록에는 지속적으로 신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28)</sup>

한편 일제강점기에 제국주의 일본은 조선의 전통적인 구 도심권을 파괴하여 기존 토호세력을 약화시키고 신흥도시를 개발하려고 했다. 이 정책은 제주도에도 적용되어 기존의 3군(제주, 대정, 정의) 제도를 없애고 산북과 산남으로 제주도를 구분하였다. 그리고 제주에서는 1912년부터 신작로가 개설되기 시작했는데 해안일주도로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일제는 해안의 작은 포구들을 도시로 개발하려고 하였다. 이때 개발된 곳이 성산포, 서귀포, 모슬포, 한림포 등이었다. 이러한 일제의 개발정책으로 말미암아 제주도는 산지포(제주)와 서귀포, 모슬포와 한림포라는 새로운 공간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이후 제주의 개신교회는 이 도시들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가장 두드러진 발전은 모슬포에서 나타났다.<sup>29)</sup> 이 시기에 모슬포교회를 중심으로 한 포교활동은 중문리교회, 법환리교회, 성읍교회, 두모리교회, 부재리교회(협재교회), 서귀포교회 등 산북지방의 동쪽으로 확장되었다.

광복 이후, 제주사회는 4·3이라는 국가폭력을 경험하게 된다. 이때 제주 개신교회는 이도중 목사를 비롯하여 1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여러 교회가 불타는 등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4·3사건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50년 6월에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제주사회는 또 다른 급격한 변화를 맞게

26) 대한예수교장로회제주노회, 『앞의 책』, 70쪽.

27) 신축년(1901년)에 일어난 ‘이제수의 난(제주신축교안)’은 외국인 선교사를 앞세운 천주교 포교활동과 그간 누적된 봉건적 조세수탈에 항의하며 봉기한 제주도민들과 이에 저항한 천주교인 간의 유혈 충돌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제주도민들은 서양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되었고, 이것은 개신교회가 제주지역에 정착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8) 대한예수교장로회제주노회, 『앞의 책』, 79쪽. 이기풍 목사가 보고한 개신교회 출석인원 수는 1911년 『제5회 독노회록』, 160명, 1912년 『장로교총회 보고서』 300여 명, 1913년 400여 명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29) 대한예수교장로회제주노회, 『앞의 책』, 94쪽.

된다. 전쟁이 발발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주항과 성산포항에 1만여 명의 피난민이 들어왔고, 1951년 중공군의 개입으로 벌어진 1·4 후퇴로 인해 5만 명에서 6만 명에 이르는 피난민이 제주도로 들어오게 되었다. 당시 기독교 잡지에는 제주에 피난 온 교인이 9,663명이고, 목사가 18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sup>30)</sup> 이 피난민들은 제주시 무근성(현재 삼도이동)에 천막으로 이뤄진 피난민촌을 마련하고 거주하였다. 이 외에도 모슬포, 서귀포, 한림 등 제주 전역으로 이주한 피난민 신자들이 조직되어 교회를 세웠다. 또한 피난을 왔던 개신교인들은 제주시에 영락, 도두, 화북, 한라교회를 세웠고, 동쪽 조천지역에서는 신촌, 함덕교회를 세웠으며, 서귀포지역에서는 시은, 보목, 효돈, 토평교회를 세웠다. 제주도 서쪽지역인 한림에서는 비양도, 월령교회를 세웠고, 추자도에서는 추광교회를 세웠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뿐만 아니라 감리교와 성결교 교파에서도 제주에 교회를 세우면서 제주는 다교파 시대를 맞았다.<sup>31)</sup> 또한 제주의 피난민들은 대한신학교 제주분교를 설립하고, 단기 성경학교 및 자녀들을 위한 피난민 학교를 세우기도 하였다.<sup>32)</sup>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제주 개신교회는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 피난민들이 중심이 되어 세워진 대표적인 교회는 제주영락교회(1952년)이며, 제주성내교회(1910)에서 분리된 동부교회와 피난민이 세운 중부교회가 하나로 통합되어 제주 성안교회가 되었다. 이 두 교회는 오늘날 제주 개신교계의 대표적인 교회이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서부교회와 모슬포교회는 갈등으로 인해 교세가 나뉘었지만,<sup>33)</sup> 비워진 그 자리에 새로운 교인들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교인이 증가하였다. 한국 본토에서 피난 온 개신교 교인들이 새로운 교회를 설립·건축하면서, 제주지역 개신교회는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물리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1954년 6월부터 미국 남장로회 한국선교회가

30) 『신앙생활』, 10-78, 35쪽. 재인용 대한예수교장로회제주노회, 『앞의 책』, 268쪽.

31) 대한예수교장로회제주노회, 『앞의 책』, 300~302쪽.

32) 대한예수교장로회제주노회, 『앞의 책』, 268쪽.

33) 참고로 서부교회는 교회 건물에 대한 소유권 문제로 한신파(조선)와 장신파(노회)로 분리되어 갈등이 발생하였다. 모슬포교회는 조남수 목사가 부임한 이후에 교파 선택 문제로 분쟁이 있다. 조목사는 예장 측과 기장 측의 분열 당시에 기장 측에 가담함으로써 모슬포교회는 기장 측과 예장 측으로 분리되었다.

제주지역 10개 교회에 재정적 지원을 해주었는데, 이것은 제주지역의 개신교회가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sup>34)</sup>

1960년대부터 한국 정부는 제주도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정책수립 과정에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자본축적 과정에 조응하도록 이루어졌다. 제주도 개발계획의 주요 방향은 국제자유지역, 관광개발, 산업개발 세 가지로 진행되었다. 실제적으로 불균형 성장론을 기조로 하는 국가의 경제 개발정책의 영향으로 제주도는 국제자유지역화를 염두에 두면서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로 인해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는 시기동안 제주도는 급속하게 관광산업이 팽창하였고,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는 제주도가 이국적인 관광의 섬으로 분업화되어 통합되었다.<sup>35)</sup> 이와 같은 국가 주도 개발로 인해 제주도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명 관광지가 되었고, 관광산업에 의해 광주·전남지역 출신들이 제주도로 많이 이주해 왔다. 이들의 유입으로 제주지역의 개신교회는 1970년대 중반부터 또 다른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다. 새로운 이주민 교인들의 유입으로 교회가 성장하게 되자, 제주의 개신교회는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의 증축(또는 신축)이 요구되었다.<sup>36)</sup> 그것은 미국 남장로회 한국선교회, 서서평 선교사가 세운 부인조력회 제주지회, 탈마지 선교사 부자(타마자, 타요한) 등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실현될 수 있었다.<sup>37)</sup> 이러한 개신교계의 성장은 1980년대 제주

34) 대한예수교장로회제주노회, 『앞의 책』, 322쪽. 해방 이후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제주노회는 미국 남장로회의 지원을 받아 피난민 교회에 응급구호 상비품을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등성경학교와 한림농민성서학원 등에서 공부하고 개척교회를 세운 전도사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1950년대에 교회 10곳을 재정적으로 후원하였다.

35) 이상철, 『앞의 글』, 1997, 273-311쪽 재인용; 김정임·윤명희, 『앞의 글』, 144쪽.

36) 염미경, 『앞의 글』, 2011; 대한예수교장로회제주노회, 『앞의 책』, 304쪽.

37) 특히 미국 남장로회 한국선교회는 1908년 이기풍 목사가 제주에 입도한 이래로 1970년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제주 선교를 지원하였고, 1970년에는 선교센터(제주기독센터)를 세워서, 제주지역사회에 의료 지원과 학생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보계선 선교사가 건강 악화로 제주를 떠나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주노회가 제주기독센터의 일체의 재산권을 양도받아 센터의 이름을 ‘제주기독회관’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제주노회사』, 2000, 46~51쪽 재인용; 대한예수교장로회제주노회, 『앞의 책』, 322~302쪽. 한국 본토의 교회들과 외국인 선교사들은 제주지역 미자립교회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물론, 제주도민을 상대로 무료 의료봉사와 치료를 제공하였고, 선교사들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제주 전역에서 교육을 담당하였다.

지역 개신교회들의 재정적 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양한 선교기관들이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 제주에 제주극동방송, 제주기독교방송국, CTS, CBS제주방송, 제주기독신문 등 교계 언론사들이 설립되어 팽창하는 교세를 뒷받침하였다.

## 2. 2000년대 이후 제주사회변동과 개신교회

2002년경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었다. 2006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다. 이것은 IMF 구제금융과 제주지역에 불어닥친 경제불황을 돌파하려는 국가 및 제주사회의 요구가 맞아떨어지면서 나타난 결과였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에 대한 개발정책은 더욱 가속화되었다.<sup>38)</sup>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제주국제자유개발센터(약칭 JDC)를 설립하여, 제주의 국제자유도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sup>39)</sup>

이처럼 제주지역에 대한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한국인 및 외국인의 제주 이주가 2000년 이후부터 지속되었다. 호남지방통계청은 제주지역이 2010년 이후 순유입 인구가 최근 5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인구 증가의 배경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업 유치 정책뿐만 아니라 영어교육도시, 올레길 조성,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등이 한국인의 제주 정착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sup>40)</sup>

3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 제주특별법은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상의 분권을 명시하고 있다. 2017년 9월 현재, 제주특별법은 국무조정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10월 2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3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www.jdccenter.com). JDC(약칭)는 2002년 5월에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 공기업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전담기구로서 의료, 첨단 과학 분야의 프로젝트와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한다.

40) 호남지방통계청 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 변화를 읽다’ - 통계로 본 제주의 변화상」, 2016년 6월 29일자.

이러한 제주사회의 변동은 개신교회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6년 제주기독신문에서 집계한 제주 개신교회의 수는 총 433개이고, 교단은 34개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 소속 교회가 123개로 제일 많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이 46개,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이 41개, 한국기독교장로회 25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19개 등 순이다.<sup>41)</sup> 2008년 100주년 기념행사에 360여개의 제주개신교회가 참여한 사실<sup>42)</sup>을 보더라도, 2016년 현재 제주의 교회가 433개라는 것은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위 교단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이 조사한 2016년 통계를 보면, 아래 <표 1>과 같이 2013년부터 이 교단의 총 교인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세례교인은 증가하고 있으나 원입교인(새신자)은 총 교인 수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새로 전도되어 교회에 출석하는 수보다 기존에 개신교 신자들이 제주로 이주하면서 개신교회로 출석하는 세례교인 수가 증가하면서 총 교인수가 많아지게 된 것이다. 즉, 개신교회 신자 수는 증가했으나 육지의 개신교회에 다니던 신자가 제주에 정착하면서 제주지역 개신교회로 수평 이동한 것이다. <표 1>은 제주 개신교회 가운데 교회 수가 가장 많은 교파의 교인 수를 집계한 것이지만, 타 교파의 교인 증가 수를 감안한다면 제주의 개신교회 신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표 1>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주노회 교세 통계

(단위 : 명)

구분	유치부	초등부	고등부	원입교인	세례교인	총교인수
2013년	1,020	3,057	1,435	1만2876	1만8743	3만3753
2014년	943	2815	1,132	1만3574	1만8955	3만4743
2015년	948	3230	1,204	1만2601	2만874	3만5758

\* 출처: 제주기독신문(2016년 8월 27일자), 1면.

\*\* 원입교인은 새신자를 말한다

41) 제주기독신문, “433개 교회, 2016년 제주복음화 향해 새 출발”, 2016년 1월 9일자.

42) 2008년경 제주 개신교회는 제주 선교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100주년 기념사업을 전개하였다. 제주 개신교계의 연대모임의 성격인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가 제주기독교 100주년기념위원회를 조직하였고, 2008년 4월에 제주 월드컵경기장에서 360여개의 제주 개신교회가 모여서 기념행사를 하였다. 그 시기에 제주도 개신교계는 제주의 교세를 4만 명으로 추산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제주노회, 『앞의 책』, 369쪽.

종합해보면, 제주사회의 변동은 제주지역 개신교회의 성장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질 4장에서는 2000년대 이후 제주사회의 변동이 개신교회 조직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고 있는 제주사회의 한 단면을 사례로 상세하게 검토하려는 것이다.

#### IV. 제주지역 「바다교회」의 변화와 딜레마

우리는 2000년대 이후 제주사회변동이 제주지역 개신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제주 「바다교회」 사례를 분석했다. 「바다교회」는 2000년대 이후 여러 이주민 교인들이 출석하게 되면서 교인 구성에 변화를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건축계획을 둘러싸고 교회 지도부와 기존 교인 그리고 이주민 교인 간에 갈등이 깊어졌다. 이처럼 「바다교회」 사례는 2000년대 이전과 이후에 조직 내부와 외형적인 조건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우리는 이 사례가 2000년대 이후 제주사회변동(그리고 그것이 불러온 이주 인구의 유입)이 현재 제주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살펴보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보았다.

##### 1.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이 글의 연구 대상인 제주 「바다교회」는 1993년에 창립한 농어촌교회이다. 이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이며, 인구 1만 5천여 명이 사는 읍소재지에 있다. 「바다교회」가 위치한 지역은 이 교단뿐만 아니라 감리교회, 성결교회, 그리스도교회 등과 같은 다양한 교파의 개신교회가 여럿 있다. 그 일대에 교인 수가 가장 많은 곳은 「하늘교회」와 「바다교회」이다.<sup>43)</sup>

「바다교회」의 첫 모임은 한 교인의 집에서 시작되었고, 1994년 1월에 조립식 건물을 임대하여 그곳을 예배처소로 사용하였다. 1994년 7월에 첫 목사가 부임하고, 이후 같은 해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주노회의 허가를 받아

43) 「하늘교회」와 「바다교회」은 모두 가명이다.

설립 예배를 진행하였다. 첫 목사의 교회 정책 방향은 제주토착주민을 대상으로 포교하고, 이들이 신앙교육을 받아서 새로운 신자를 발굴하여 신앙교육을 주체적으로 지도하도록 만드는 데 있었다. 목사 중심이 아닌 평신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정책과 초교파적인 개신교회 연대 방식으로 이 교회는 그 일대에서 신선한 교회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교인들 또한 목사의 정책에 동조하며 교회를 운영하였다. 십여 명에서 출발한 「바다교회」는 첫 목사가 부임한 지 몇 년 만에 성인 80여 명의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고, 이를 발판삼아 1996년에는 교회를 신축할 수 있었다. 이 당시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의 절반 이상은 1990년대 이전에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온 이주민이었다. 이 교인들의 직업은 주로 농업, 자영업자, 군인, 비정규직 노동자, 해녀 등이었고 연령층은 40세 이상이 절반이었다.

2002년에 첫 목사가 타지방 교회로 가게 되자, 두번째 목사가 부임하였다. 두 번째 목사는 교회와 함께 2003년부터 아동·청소년 대상의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합창단과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창단하여 그 지역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부임 초기, 두 번째 목사의 교회정책 방향은 첫 목사의 그것과 유사했다. 하지만 부임하고 몇 년 후부터 타지방에서 교인의 수가 급성장한 어느 지방 교회의 성장시스템을 「바다교회」에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성장 중심의 개교회주의적인 방향으로 급선회하였다.

「바다교회」는 2010년 이후부터 수도권 일대에서 제주로 이주한 가족 단위의 신자들이 교회로 유입되면서 교회의 신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14년 말부터 2015년 후반까지 「바다교회」에 등록하여 출석하는 이주민 가정은 열아홉 가정이었으며, 이 가정에서 새로 출석하는 이들의 수는 약 20여 명이 되었다.<sup>44)</sup> 이 시기에 새로 출석하는 이들은 자신의 출생지나 거주지에서 교회를 다니던 개신교 신자이다. 즉 「바다교회」에 의해 새롭게 포교된 미전도인이 아니라,<sup>45)</sup> 타 지방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제주에 정착하면서 출석

44) 2000년대 이후 제주에 들어온 국내이주민들은 귀농·귀촌, 교육, 문화·예술활동, 창업 등 다양한 이주동기를 가지고 있다. 「바다교회」에 출석하는 이주민들은 제주의 해안도로나 중산간 지역에서 음식점, 숙박업, 갤러리 카페 등 관광서비스업체를 경영하는 자본가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거의 수도권 출신이었다.

45) 이 용어는 「비종교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종교인이거나 개신교 신자가 아닌



하게 된 교인이다.

이렇듯 두 번째 목사의 교회 정책방향의 전환과 이주민들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바다교회」는 한동안 기존 체제를 유지해왔다. 목사와 교인 사이에는 별다른 갈등이 없었다. 그러나 2015년부터 「바다교회」는 교회 건축을 둘러싼 갈등에 휘말렸다. 2015년 10월에 목사와 당회 장로들이 교회 건축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자 기존 교인들이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와 건축 비용에 따른 제반 조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직 내부에 갈등이 깊어지게 되었다. 여기에는 최근 이주한 교인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교회 지도부의 태도가 결부되어 있었다.<sup>46)</sup> 이후 교회 건축에 반대하는 몇몇 기존 교인들이 「바다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거나 다른 교회로 이동하였다.

현재 이 교회의 갈등 상황은 수면 아래로 잠식된 것처럼 보이나, 우리가 사례자들을 인터뷰해 본 결과 갈등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2016년 초반에 시작된 교회 건축은 2017년 초반까지 진행되었다.

우리는 「바다교회」의 증축과 재건축으로 인한 갈등관계가 표면화 된 시점이 국내 정착 주민의 폭증하는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2010년 이후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이주민 신자들로 인해 「바다교회」 구성원들이 다양해졌고, 그 이후 교회조직 내부와 외형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기 때문이다.<sup>47)</sup>

우리는 「바다교회」의 조직에서 일어난 갈등 양상을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교회 구성원의 약 120여 명 가운데 이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11명을 중심으로 면접하였다. 이 가운데에는 최근에 출석하는 이주민 신자<sup>48)</sup> 2명도 포함되어 있다. 이 교회에 등록하여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주요 직위를 가진 교인 가운데 20세 이상에서 70대 연령까지 면접하였다. 그것은 「바다교회」의 변화과정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 연령별로 심층면접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각 사례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아래 <표 2>과 같다.

사람'을 뜻한다.

46)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통해 기술하겠다.

47) 제주지역은 2010년 이후 순유입 인구의 수가 증가하는 시기였는데, 그것은 이 교회 신자 수의 증가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48) 이 글에서는 2010년 이후 「바다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을 이주민 신자라고 부른다. 이들은 기존 교인들과 달리 삶의 방식과 교회 조직에서의 적응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표 2〉 사례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사례자	연령	학력	직업	결혼여부	교회 출석년수	교회에서의 역할	교회 증축 이후 출석여부
A	20대	대재	학생	무	23년	교사	출석
B	30대	대졸	취업준비	무	18년	(옛 교사)	불출석
C	30대	대졸	교사	유	23년	(옛 교사)	교회 이동
D	30대	대졸	사회복지사	무	23년	교사	출석
E	40대	고졸	공무원	무	23년	(옛 교사)	출석
G	50대	대졸	자영업	유	21년	안수집사	교회 이동
H	50대	대졸	관광서비스업	유	7년	권사	출석
I	60대	중졸	건축업	유	16년	안수집사	불출석
J	60대	초졸	농업	유	23년	권사	출석
K	70대	대졸	관광서비스업	유	3년	안수집사	출석
L	70대	중졸	공공근로	유	23년	장로	교회 이동

심층면접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약 24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장기간의 인터뷰가 필요했던 이유는 「바다교회」 조직 내부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시점부터 교회가 증축된 이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심층면접과 참여관찰에 들어가기 전에, 제주지역 개신교회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개신교 목회자들과 사전에 면접을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제주의 개신교회가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조직 내부가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우리가 「바다교회」에 주목했던 이유는 이 교회가, 제주의 개신교회 가운데 2010년 이후에 교회 증축이나 재건축 등 외형적으로 크게 변화하면서 급작스러운 변화를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 2.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 「바다교회」 교인들의 태도 및 적응

「바다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은 요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 5년 사이에 「바다교회」가 위치한 지역에는 수도권 일대에서 온 문화예술인, 부동산 개발사업자, 노후 생활로 이주한 자 등이 이 교회로 출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은 타지방 교회에서 이미 세례를 받고 개신교인이 된 이주민 신자이다.

“나는 원래 학교 전근을 가더라도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 다니는 게 원칙이야. 여기 와서 교회를 몇 군데 가봤어. 이 교회는 두 번 와서 보고 결정했지. 지역의 다른 교회하고 다른 점이 이 교회 분위기가 좀 더 개방적이라는 느낌이랄까. 저쪽 교회는 좀 폐쇄적이고.”(사례자 K씨)

“교회에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교회의 미래를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이 교회에 왔는데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애들이 모여서 교육관에서 기도하고 있더라고. 교회가 뭔가 살아있다고 느껴서.”(사례자 H씨)

사례자 K씨는 학교 교장으로 은퇴한 이후에 사진예술가로 살고자 3년 전에 제주에 정착한 교인이다. 그는 앞서 이주한 후배의 소개로 제주에 와서 살다가, 1년의 제주살이 경험 이후에 자연환경과 교회가 좋아서 스스로 제주에 정착한 자이다.

이주민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고려하는 점은 ‘종교조직의 개방성(수용성)’이다. 최근에 출석하기 시작한 교인들이 「바다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교회의 분위기와 목회자의 철학이나 수용적인 교회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H씨처럼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교회의 아동·청소년의 수와 교회 분위기도 선택 요인이 된다.

「바다교회」의 수용성은 교회의 창립 초기의 교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정착한 선행 이주민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교인 수가 정체되고 신자들의 고령화가 진행되어 교회 조직에 봉사할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새로 출석하는 신자들을 교회 조직의 봉사자로 흡수하려는 목사와 교인들의 노력이 이주민 수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회의 개교회주의가 최근에 제주에 정착한 이주민 신자의 교회 찾기와 맞물리면서 「바다교회」의 교인 증가에 주요 요인으로 작동됐다고 본다.

적극적인 이주민 신자의 교회 출석과 달리, 기존 교인들은 급증하는 이주민 신자의 교회 출석을 낮설게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심층면접을 진행했던 기존 교인 가운데 젊은 연령층에서 주로 나타났다. 사례자 D씨는 전라도에서 제주로 온 부모를 둔 이주 2세대이다. 이 사례자는 「바다교회」에 출석한 지 이십여 년이 되었고, 현재는 이 교회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하는 교인이다. 사례자 D씨와 B씨는 교회 내부의 구성원이 다양해지는 것이 낮설

다고 표현한다.

“요즘은 제주에 잠깐 살려고 왔다가 정착하는 신자가 많은 것 같아요. 한동리, 평대리 쪽으로 많이 이주하는 것 같고. 일주일 새에 새로 등록하는 가정이 두 곳이에요. 최근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교회가 낯설어요.”(사례자 D씨)

“엄마가 얼마 전에 오랜만에 교회 갔는데 누가 누구인지 모르겠던. 앞으로 교회가 안 나가겠다고 하맨. 뭐하러 건축은 했는지 몰라.”(사례자 B씨)

한편, 최근 교인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사례자 E씨는 「바다교회」 창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교인들이 유동적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한 때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표현한다. E씨는 새로운 교인들의 출석에 처음에는 당황했으나 지금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고 있다.

“요즘 교회에 가면 80%가 모르는 사람이고, 20%가 아는 사람이야. 예전에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묻혀서 다녀. 교회 가는 건 예배로 영적인 것을 충족하기 보다는 어차피 집에 부모님 보러 촌에 가야하니깐 교회에 가는 거지. 조만간 사람들이 5·6년 정도 있다가 떠나지 않을까?”(사례자 E씨)

사례자 E씨처럼 최근의 교인 증가를 지나가는 과정으로 간주하는 태도는 「바다교회」의 역사적 과정과 관련이 있다. 교회 창립부터 기존 교인들은 새로 출석하는 교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사기를 당하거나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빈번했다. 이와 더불어 이전부터 교인들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 기존 교인들은 이들이 곧 떠날 사람이라는 전제가 그 바탕에 깔려 있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기존 교인들은 교회 조직에 이주민 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불안하게 보거나 거부감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바다교회」 교인들의 일반적인 태도를 보면 기존 교인들이 이주민 신자의 교회 출석을 어색해하지만, 교회에 일할 봉사자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특히 최근 봉사 인력의 부족을 경험한 교회학교나 성가대 등은 이주민 신자들의 출석을 매우 반기고 있다. 사례자 A씨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와 함께 이 교회에 출석하는 이십대 청년이다. 교회에서 주요 직위를 가진 부모와 함께 적극적으로 교회에 봉사활동을 한다. A

씨는 교회 구성원이 다양해짐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중고등부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을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분(이주민 신자들)이 주일학교에 와서 입김이 센 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그냥 가족 같아요.”(사례자 A씨)

사례자 A씨처럼 교회 조직의 지도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교인의 자녀는 이주민 신자의 증가에 부정적이지 않다. 사례자 J씨는 교회 창립과 신축과정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고, 교회 성장을 위해 토착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회 봉사활동을 하는 교인이다. J씨에게 교인 수의 증가는 신이 베풀어준 결과이다.

“하나님이 동쪽에 부흥을 일으키셔서 사람들이 우리교회로 몰려오게 되었다.”(사례자 J씨)

교인의 증가를 신이 일으킨 기적으로 간주하여 이주민 신자에게 호의적인 J씨와 달리, 교회의 각종 모임과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교회 조직을 변화시키려는 이주민 신자의 시도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는 기존 교인도 있다. 사례자 D씨는 교회가 설립되었던 초기 상황과 현재를 비교하며 교회 분위기가 보수화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예전에 교회가 진보적이었다면 요즘은 교회가 보수적으로 변한 거 같아요. 은퇴하고 이주해 온 나이든 분들이 오셔서 그런 거 같아요. 대체적으로 자신의 방식을 강조하면서, 권위적으로 강요하는 방식이 되어버리니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이 당황해버려요. 교회 행사 때마다 후원금도 많이 내서 재정이 부족하지 않아 좋긴 한데 교회 예산이 있는데도 그분들한테 의존하는 거 같아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사례자 D씨)

이처럼 최근 5년 사이에 두드러진 「바다교회」의 교인 증가에 대해, 기존 교인들은 새로운 변화과정으로 보기보다 인구 이동이 잦은 교회의 특성으로 보고 있는 부류가 있는 한편, 고령화된 교회에서 기능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봉사자가 출현했다는 점과 그들의 재정적인 도움을 긍정적으로 보는

교인들이 혼재되어 있다.

### 3. 교인 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 및 적응 방식

이주민 신자는 공식적인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예배와 각종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회에서 행사를 할 때에 많은 후원을 한다. 이 때문에 이주민 신자는 목사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다. 이주민 신자들은 목사와의 개별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조직 내부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다. 이전에 출석했던 수도권 도시교회의 성장지향적인 운영 체계를 소개하면서 목사를 설득시키고 교회 운영방침을 바꾸려고 시도했다. 이렇게 이주민 신자들이 교회에서 새로운 체계를 형성하는 시도에 대해 사례자 D씨는 매우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우리가 예전에 해왔던 주일학교 운영 방식을 어느 순간 상의 없이 목사님과 말해서 짝 바꿔 놓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목사님과 직접 의논해서 결정했다면, 그분들이 와서는 중간에서 목사님과 결정해서 우리에게 강요하면서 요구해요.”(사례자 D씨)

기존 교인들은 이주민 신자의 다양한 활동과 의견이 합리적인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지역의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토대로 교회를 운영해오던 예전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는 이주민 신자가 제주 정착 이전에 출석했던 도시의 체계적인 교회 운영 방식을 소개하며 비교하는 데에서 오는 기존 교인들의 열패감에서 기인하는 바가 있으나, 기존 교인이 아닌 이주민 신자가 목사와의 직접적인 사회적 관계를 통해 교회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저항감으로도 보인다.

이러한 점은 이주민 신자인 K씨가 기존 교인들의 태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K씨는 자신의 교회 적응력은 높은 교회 출석과 교회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다고 본다.

“정말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여기 교회 사람들은 나오는 등 마는 등 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어. 각성이 필요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열심히 해주어야지. 교회는 기본이 출석부터 하는 거야. 목사님이 설교할 때 ‘-니다.’라고 안 해서 이해하기 참 힘들

있어. 문장 끝을 흐리게 발음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나이가 들면 귀가 어두워져서 문장을 잘 끊어줘야 머릿속에 정리하고 다음 말을 인지하거든. 그래서 목사님께 얘기했더니 다음엔 그렇게 하시더라고. 예전에 비해 목사님 설교가 더 힘이 있어졌어.”(사례자 K씨)

이주민 신자는 개인적으로 목사를 응대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교회의 소규모 조직에서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려고 한다. 목사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은 이주민 신자의 교회 적응에 한 몫을 한다. 이 때문에 기존 교인들은 목사로부터 교회로부터 소외 감정을 갖게 된다. 이러한 정서가 바탕에 있는 기존 교인은 이주민 신자가 지닌 교회 소속감과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라고 자주 말씀하셔서, 저는 저희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육지에서 예전 다니던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말하더라고요.”(사례자 D씨)

사례자 D씨처럼 이주민 신자의 적극적인 행위방식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원인을, 기존 교인들은 최근에 달라진 목사의 교회정책 방향에서 찾는다. 현재 목사가 이주민 신자에게 지나치게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기존 교인들은 면접 당시에 현재 목사의 관심사가 최근 제주에 정착하는 이주민에게 맞춰져 있어서 기존 교인들이 배제되고 있다고 토로하였다. 기존 교인들이 경험하는 이러한 소외감은 2010년 이전까지 유동 인구가 늘 상존하던 「바다교회」의 지난 역사와 궤를 달리하고 있다.

한편 이주민 신자의 교회 적응방식은 교회 내부의 기존 교인들과의 사회적 관계보다는 2010년 이후 제주에 정착한 선행 이주자와의 친밀감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도시를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제주 정착을 선택한 이주민이라는 동질의식과 제주 생활에 대한 관심사를 선행 이주자와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민끼리 친밀해지는 것이다.<sup>49)</sup>

“제가 새가족부<sup>50)</sup>를 하는 이유도 제가 경험해보니까 나 같은 이주민들이 교회 등

49) 종교조직은 이주민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매개요인이다.

50) 교회에 새롭게 출석하는 이들에게 신앙적인 교리를 교육하고 교회 적응에 도움을 주는

록을 해도 한참동안 서먹서먹하다는 거예요. 19가정이 새로 등록했잖아? 가만히 지켜 보면, 기존 교인들보다는 이주민들끼리 가까워. 기존 교인들이 아무리 가까워도 이주민들은 경계를 늦추지 않아. 이주민끼리는 서로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어. 새롭게 등록된 이주자들이 교회에 적응하는데 그런 면에서 연결점이 되어주지.”(사례자 K씨)

2010년 이후 부동산개발이나 대안적 삶을 이유로 제주에 정착한 이주민 신자들은 그들의 가족끼리 식사를 하거나 취미 생활을 공유한다. 이주민 신자들은 기존 교인과는 교회에서 형식적으로 연대하면서 일정 정도의 거리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거리감은 기존 교인들과 삶의 방식이 다른 데에서 오는 계층적 차이도 한 몫을 한다. 실질적으로 기존 교인과 이주민 신자 간의 삶의 방식의 격차는 주거형태, 직업, 소득수준, 학력 등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차이는 여가생활에서 더욱 두드러져 보였다. 최근에 출석하는 이주민 신자는 해외여행, 골프, 요트, 소규모 문화예술 공연 등으로 여가를 향유하지만, 기존 교인들은 교회에서 열리는 문화예술 행사에 참여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여가를 향유하는 계층이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교회 후원금액에서도 기존 교인과 이주민 신자들을 구별되게 만든다. 이주민 신자들이 교회에 후원하는 현금의 액수가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기존 교인과 이주민 신자 간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존재하지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는다. 기존 교인들이 갖는 이주민에 대한 저항감의 원인은 계층적인 차이에서 오는 위화감과 더불어 소득수준에서 기존 교인들보다 우위에 있는 이주민 신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교회 내에 커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면접을 했던 대부분의 기존 교인들은 「바다교회」 현금의 절반 이상을 이주민 신자들이 낸다고 응답하였다. 교회 안에서 후원금의 액수가 클수록 이주민 신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더욱 커졌고, 2015년에 발표된 목사의 교회 증축 선언은 이주민 신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교회 정책을 변화시킨 대표적 일례였다. 지금부터 교회 증축 과정에서 나타난 상황들을 통해, 「바다교회」가 이주민 신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갈등과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4. 교회 증축을 둘러싼 갈등 및 의사결정 과정의 변화

현재 「바다교회」는 창립 20여 년 만에 새로운 갈등 상황을 맞이했다. 이전부터 조직 내부에서 교인 간의 갈등이나 목사와의 갈등은 첫 목사가 있던 당시나 현재 목사에게도 상존했으나, 개신교 의례나 목사의 설득을 통해 봉합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직면하게 된 갈등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 교회는 창립 4년 만에 건물을 신축해 본 경험이 있다. 기존 교인들에게 교회 건축은 새로운 시도가 아니다. 당시 조립식 가건물인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기존 교인들이 조립식 건물의 임대료가 끝나가는 시기와 맞물려 교인 증가를 이유로 교회 건축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첫 목사에게 하였다. 이후 교회 건축의 필요성이 확산되어 몇 년 동안의 협의 과정을 거쳐서, 1997년 IMF 시기에 가까스로 건축을 마무리하였다.

당시 첫 목사는 교회 신축의 필요성과 절차의 전 과정을 아동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교회 신축에 대해 교인들과 협의를 하면서 교인 대부분의 동의를 얻어 교회를 건축하였다. 이때 첫 목사는 자신의 가족을 비롯하여 주변 친인척의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였고, 기존 교인들도 자발적으로 전 재산을 후원하며 주택을 담보로 대출하여 교회 신축에 힘을 실었다. 당시 지게 된 은행 채무는 건축 이후 18년 동안 변제해갔다. 이와 같은 교회 창립과 건축의 과정을 기존 교인들은 상세히 알고 있었고, 건축 당시에 발생한 각종 위험과 심리적 고통은 교인들이 신을 향해 쌓아가는 하나의 수련 과정으로 간주되었다. 이렇듯 모든 교인들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갈등 없이 교회 건축을 하고 그에 대한 채무를 갚아갔다.

그러나 2015년 「바다교회」의 증축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은 이전에 추진한 교회 신축 과정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2015년 10월초 목사와 두 명의 장로로 구성된 교회 당회(지도부)가 교인들에게 교회 증축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였다. 여러 교인들과의 정보교환이나 의사결정 과정 없이 발표된 교회 증축 통보는 이주민 신자 일부와 은밀히 협의한 이후에 이루어진 결정이었다. 교회 증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목사와 교인들은 노후화된 교회 건물을 고치고 새 건물을 지으면, 교인의 숫자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이 있기 전에,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서는 이십여 년이 된 교

회 건물의 보수를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존 건물의 하자 보수가 아닌 새로운 건물의 증축과 기존 건물의 재건축으로 논의가 갑작스럽게 바뀐 지점은, 최근 제주에 정착한 이주민 신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컸다.

교회 증축을 제안한 교인은 제주 중산간 일대에 대규모 땅을 매입하여 리조트를 건축하여 분양하고 주택 관리까지 대행하는 부동산개발업자이다. 몇 년 전부터 그는 목사와 기존 교인들에게 동쪽지역에 개발 바람이 계속 불어서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바다교회」의 성장론을 주장했던 교인이다. 건물 보수를 고민하는 이 교회에,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리조트 건설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수입할 때 교회도 함께 건축을 하게 되면 저렴한 가격에 교회를 지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회가 증축 되면 자신이 일정량의 금액을 후원하겠다는 제안도 같이 하였다. 이 제안에 목사와 장로 1명은 이주민이 급증하는 시기에 증축을 하면 교회가 더욱 부요해지며 양적으로 더욱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교회 증축은 반드시 지금 이 시기에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게 되었다.

이에 목사는 교인들과 전반적인 논의 과정을 갖지 않은 채 재빠르게 증축을 감행하였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 증축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이 교회에서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례자 I씨는 이러한 과정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았다.

“건축위원회 어떻게 구성했는지 몰라. 지(목사) 몇대로 안수집사들로 설정 해 놓았어. 서류상으로만 올라간 거지...(중략)... 원칙적으로 하려면 안수집사들 외에도 건축 계통으로 아는 사람들과 몇 번 회의를 거쳐서 작성하고 해야 된다 말이야. 그런 것도 일절 없었고.”(사례자 I씨)

위 사례자 I씨는 그 일대에서 건축업을 하고 있다. I씨는 교회 건물을 보수하는데 봉사하는 자세로 담당해온 인물이므로, 누구보다 교회 건물의 상태를 잘 아는 교인이다. 그는 교회 증축에 대한 결정이 자신처럼 건축업을 하는 전문가나 다른 교인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고 평가한다. 특히 I씨가 가장 큰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근거 없이 저렴한 건축비용과 건축 소요기간이다. 당시 제주는 건설경기 호황으로 건축자재가 폭등한

데다 건축 공사도 지연이 되어 완공도 늦어지는 시기였기 때문이다.<sup>51)</sup>

“(협의가) 일절 없었어. 교회 짓는다 말하고 의논도 없이 동의도 없이 밀어 부쳐버린 거라. 내가 몇몇 사람한테 이거는 안 된다고. 김○○, 그 사람 조작으로 이거 시작된 거라. 틀림없이. 비용이 평당 200만원이라 하는데,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적어도 평당 300만원은 있어야 지을 수 있어.”(사례자 1씨)

1씨가 제기했던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와 건축 비용에 대한 의문은 기존 교인 사례자 G씨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G씨는 「바다교회」가 처음 건축한 이후로 십팔여 년 동안 교회의 채무를 주도적으로 갚아온 인물이다. 교회 채무를 변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G씨는 「바다교회」의 목사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어온 교인이기도 하다. G씨와 목사와의 신뢰감은 이 사례자의 책임감과 성실함 때문이다. 그러나 G씨는 2015년 10월 당시 교회 증축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현재 목사의 설교 내용을 상기하며 격분하였다.

“그날 나는 설교를 듣고 완전 뛰쳐나가고 싶었어. 구토가 나왔어. 그래서 중간에 예배하다가 나가버렸어. 사모님이 나보고 어디 가냐고 하니까 저런 설교는 구역질이 나서 밖에 나간다고 했어.”(사례자 G씨)

G씨가 예배 중간에 뛰쳐나갔던 이유는 목사의 달라진 설교내용 때문이었다. 당시 설교의 내용은 대략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다. 1997년에 처음 성전을 건축할 때 「바다교회」의 통장 잔고는 10만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시기에 힘을 합쳐서 건축을 했다. 이번 성전 건축도 그때처럼 아무 것도 없이 출발하므로, 온 성도가 다 같이 모든 물질을 내놓고 헌신하여 하나님께 드리자. 이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 결단하는 자리이다.’라는 것이다.

이전 설교와는 달리 교회 증축을 신의 뜻으로 간주하고, 교인들의 희생과 경제적 후원을 설득하려고 했던 목사의 시도는 그 설교 이후에 기존 교인들

51) 제주의소리, “제주 ‘주택 보급률 111%의 불편한 진실’”, 2015년 10월 15일자. 기사내용은 제주지역 노동자 평균 임금수준은 전국 최하위인데 반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집값 상승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서 폭등하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제주형 종합주거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실고 있다.

의 거센 반발로 멈추었다. 이 일을 계기로 몇몇 신자들은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이동했거나 아예 교회에 출석하지 않게 되었다. 그간 목사들과 친밀한 유대감을 갖고 있던 G씨는 교회 증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사와 장로를 설득하다가 실패하자 다른 교회로 이동하였다.

“교회가 십팔여 년을 건축 빚을 갚아왔어. 그동안 교회에서 뭐 좀 하자고 해도 재정(재무) 때문에 내가 아껴 쓰라고 싫은 소리하면서 시어멍 역할을 했잖아. 이번에 교회를 다시 짓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기도하면서 천천히 결정하자고 말해도 씨알도 안 먹혀. 교회 더 크게 지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거랜 하면서 성전 건축이라는 환상에 눈이 완전히 돌아버렸더라.”(사례자 G씨)

이처럼 교회 증축 결정에 적극적인 저항과 설득을 시도하는 교인이 있는 반면에, 교회 증축을 찬성하는 교인들도 있다. 사례자 G씨처럼 목사의 달라진 설교와 교회 증축에 대해 강한 저항감을 보이는 이들은 젊은 연령층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이 교회의 아동복지시설과 관련된 일을 하는 몇몇 교인을 제외하면, 사례자들의 면접과정에서 교회의 증축 결정과정에서 대한 의문과 부정적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5. 교회 증축 이후의 딜레마

2017년 4월 「바다교회」는 건축을 마무리했다. 지금은 새 건물에서 예배와 아동·청소년의 신앙교육 그리고 각종 소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몇 해 전 직장을 이유로 다른 지역에 거주했다가 2016년 초반에 제주로 돌아온 사례자 C씨는 「바다교회」의 갈등 상황이 최고조인 시기에 가족과 교회에 출석하였다. 그러나 그는 한 달 정도 이 교회에 출석하다가 다른 교회로 이동하였다. 최근에 벌어진 이 교회의 사태에 부정적 감정을 갖고 있던 C씨는 「바다교회」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한 달쯤 「바다교회」 나가다가 ○○교회로 갔지. 근데 (「바다교회」) 목사님이 만나자고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 목사님이 ‘사례자 C씨 선생, 이제 자녀도 낳고 어른이 됐으니까 어른답게 해야 된다. 어른이면 자기 생각대로만 할 게 아니다. 선생이 내려오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많았고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도 많으니까 「바

다교회」로 나오는 게 맞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해. 전혀 공감이 안 되더라고. 대답하지 않으니깐,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고 해. 나 같은 중간연령층이 빠져 나가니까 겁이 났겠지.”(사례자 C씨)

C씨처럼 최근 「바다교회」를 떠나는 중간 연령의 교인들이 지속되자 현재 목사는 기존 교인들을 설득하거나 회유하고 있다. C씨는 자신의 신앙관에 적합한 교회를 찾아 떠났을 뿐인데, 그것을 어른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훈계하는 「바다교회」 목사의 태도는 교회 건축과 관련이 있다는 뉘앙스이다. C씨처럼 다른 교회로 떠나는 신자들은 현재는 멈춰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교회 건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그간의 과정은, 창립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기존 교인들을 다른 교회로 이동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교회 이동을 저지하려는 목사의 태도는 사례자 E씨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다. E씨는 교회 증축 이전과 이후의 설교를 비교하면서 현재 목사의 교회 정책 방향과 설교가 달라졌다고 본다.

“예전에는 (지역토착주민 대상의) 선교적인 목표가 먼저였고, 지금은 교회 성장이 목표이지. 그때는 선교에 목적이 있었으니까 영성이 질적으로 높아졌지만, 지금은 양이 많아지는 것이 목표니까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스타일이지. 목사가 예전에는 기존에 있던 교인들에게 의지를 했다면, 지금은 새로 온 이주민들한테 골고루 의지하는 거 같아. 작년(2015)에 비해 올해 목사님 설교는 교인들을 달래는 느낌이야.”(사례자 E씨)

E씨는 현재 「바다교회」의 사태에 침묵하며 드물게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이전까지 적극적으로 교회 행사에 참여했으나, 현재는 예배 이외에 다른 모임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표면적으로 직장이 멀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지만, 최근 벌어진 교회의 사태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다. E씨는 지금까지 교회에 냈던 십일조를 목사의 교회 증축 선언 이후부터 장학금으로 대학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십일조를 하고 있다. E씨의 이러한 태도는 교회 증축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하는 행위이다. E씨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원인을 목사의 책임으로 보고 있다.

“난 교회에 관심이 없어. 건물이 올라가든지 말든지. 그건 나랑 전혀 상관이 없어.

건물이 뭐 중요하겠어, 휴, 목회자들의 로망이 건축이고 개척이잖아. 이 분(현재 목사)은 개척도 안 해봤고 건축도 안 해봤으니...(중략)... 지금 과도기를 걷는 거지. 이리다가 개척까지 하실지 몰라.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사례자 E씨)

현재 「바다교회」에는 사례자 E씨처럼 교회 증축에 대한 찬반 논쟁에 동조하지 않고 관망하며 냉정하게 사태를 관찰하는 교인도 존재한다. 이들은 교회에 대한 비판은 교회 조직에 분열을 조장한다는 교계의 일반적인 담론이 싫어서 「바다교회」 사태에 조용히 침묵하고 있다. E씨처럼 침묵하는 사례자 A씨는 교회 건축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교회를 이동하고 싶으나, 부모가 교회에서 주요 직위를 가지고 있어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는 사례자이다.

“저는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은 미전도인을 교회로 인도하고 같이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주민들이 많이 왔다고 꼭 교회로 전도해야 할까요. 이주민들이 여가를 위해서 섬을 누리기 위해 교회에 오는 사람도 많은데..... 이주민들이 온다고 해서, 교회가 상황에 맞게 대처할 필요는 있지만 교회 본연의 취지를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사례자 A씨)

A씨는 교회의 본질과 건강한 교회 성장론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 현재 목사의 교회정책 방향의 초점이 이주민 신자의 적극적인 수용을 선택함으로써 외형적인 성장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A씨는 교회 청년모임의 주요 역할을 담당했던 교인으로서 현재 목사의 교회 정책과 예전 목사의 교회정책을 비교한다.

“요새는 예전 목사님(첫 목사)의 설교를 영상으로 자주 들어요. 예전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는 거는 맘몬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자본이 교회를 잠식시킬 수 있는 현실에서, 우리 신자들이 경계할 것은 맘몬이 우리 마음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본연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고 봐요. 저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되죠.”(사례자 A씨)

개신교 교리에서 중요한 내세의 구원에 대해 의심을 가질 만큼 사례자 A

씨는 현재 「바다교회」 사태를 위태롭게 보고 있다. 우리는 「바다교회」가 지역사회에서 감당하는 사회적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는데 A씨의 답변은 매우 부정적이다.

2017년 현재 「바다교회」는 의사결정과정을 생략한 채 증축을 완료하였다. 증축 이후, 우리가 면접한 11명의 사례자 가운데 여섯 명은 다른 교회로 이동했거나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면접한 사례자들 이외에도 교회의 증축 결정이 합리적이지는 않으나, 신의 뜻으로 간주하고 이를 지지하는 교인도 다수 존재한다.

“여름성경학교에 도우미로 봉사했는데 예전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대로야. 오후에 배에 참여했는데 몇 명 없더라고. 숫자가 많아지기는…… 몇 달 전에 장로와 권사 뽑았어.”(사례자 E씨)

사례자 E씨의 증언처럼 「바다교회」에 정착한 이주민의 수가 교회 성장론을 주장했던 이들이 예측했던 것처럼 증가하지는 않았다. 최근 「바다교회」는 권사, 안수집사, 장로 등 주요 직책을 맡을 교인들을 선출하였다. 선출 방식은 형식적으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보이나 그 이면은 교회의 건축 빛과 관련이 있다. 교회가 주요 직위를 최근 수여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 건축의 채무를 신임 직위 수여자들에게 일부 전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사례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번에 선출된 이들이 교회 증축을 위해서 부동산 담보대출과 더불어 일정량의 현금을 약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교회 증축을 둘러싼 갈등은 교회 건물이 완공되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으나 여전히 유효하다. 2016년에 이 교회는 건축 비용이 고갈되어 공사가 잠시 멈춰진 상태에서, 「바다교회」의 성장 담론을 만드는데 단초를 제공했던 일부 이주민 교인들은 다른 교회로 이동했거나 교회의 참여 태도를 소극적으로 바꾸었다. 교회 증축을 위해 일정 비용을 후원하겠다는 이주민 신자의 가족 일부는, 긴밀한 유대감을 갖고 있던 타지방의 목사가 제주에 교회를 개척하자 그곳으로 이동하였다. 결국 교회 증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기존 교인들이 떠맡게 되었다.

“저번에 목사와 장로가 나를 찾아왔더라고, 나한테 말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건축비용이 17억 들었는데 돈이 모자라던. 부동산 대출로 교회에 보태주라고. 자식들이 말려서 안 했지. 지금 교회 빛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를걸. 교인들도 이런 내용은 모를 거라. 분명히 빛 갚는데 50년은 걸릴 거라.”(사례자 I씨)

교회 증축을 주장하던 당시 이주민 신자가 제시했던 건축 비용 10억은 물가 변동으로 건축비가 상승하여 17억으로 증액되었다. 교회 지도부는 건축비용이 상승했다는 설명이 없이, 개별적으로 교인들을 만나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 죽을 때까지 저 빛은 못 갚는다. 교회가 자력이 안 되는데. 우리가 죽은 후에도 교회 아이들이 자라서 감당해야 될 거라. 이거 그 (이주민 일부)사람들이 안 갚는다.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러 제주에 왔는데 이런 골치 아픈 거를 책임지겠다.”(사례자 G씨)

교회 재정을 관리하고 그간의 채무를 주도적으로 해결했던 사례자 G씨는 현재 다른 교회로 이동하였다. G씨에 따르면, 「바다교회」는 자본가나 소득이 일정한 사람보다는 밭이나 양어장에서 비정규 노동을 하는 주민들이라서 갚을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없다고 말한다. 초기 건축 빛을 갚기 위해 G씨는 교회의 예산에서 경상비를 최대한 줄이려고 했다. 교회의 대규모 행사나 지역사회에의 후원을 줄이고, 교육 예산을 줄였으며, 각종 교회의 공과금을 줄여나가는 방식을 취했다고 한다. G씨는 건축 재정으로 18년 만에 교회의 건축 빛을 갚을 당시를 상기하며, 「바다교회」의 재정상태와 현재의 구성원으로는 현재의 채무액을 감당할 수 없으리라고 예측하고 있다.

결국 예측 가능한 위험 요인과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은 교회 증축과정으로 인해, 교인들 일부가 「바다교회」를 떠났고 남아있는 교인들은 긴 기간 동안 건축에 따른 채무액을 변제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였다. 이 교회의 빛은 다음세대 교인들까지 안고 가야 하는 악순환의 딜레마가 남아 있다.



## V. 나가며

본 연구는 거시적인 제주사회변동 현상을 「바다교회」라는 개신교회의 사례를 통해 미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조적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이주현상이 인간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제주사회의 일부인 종교 조직의 최근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가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제주지역 개신교회는 제주사회 변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는 제주사회의 변동이 제주 개신교회의 성장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급격한 사회변동 시기에 제주로 유입된 인구 가운데 일부 이주민 교인들로 인해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었고, 지역사회의 일부로서 이주민의 적응과 정착에 개신교회가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현재 제주지역의 개신교회는 2000년 이후 제주로 이주해온 교인들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우선 경제적·사회적 우위에 있는 이주민들이 교회 운영권을 얻게 되면서, 기존 교인들과 이주민 교인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부 이주민 교인이 내세우는 교회 성장론과 기존 교인들이 조용하면서 주류세력으로 부상하였고, 개별교회 확장이 교회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교회의 조직은 소득수준,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더 위계화 되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셋째, 탈자본주의적 가치에 경도된 이주민들의 이주 동기와는 달리 종교 조직 내부에 나타난 일부 이주민 교인의 삶의 방식은 근대 자본주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이들이 내세운 교회 성장론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교회정책이 ‘교회 건축(또는 증축)’인 것이다. 교회 성장론을 주장한 이들의 예측만큼 「바다교회」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지 않았다. 「바다교회」는 외형을 키우려다가 이리저리도 저리저리도 못하는 딜레마 속에서 성장을 위해 투여된 건축 비용과 위험만 기존 교인들이 떠안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바다교회」는 제주사회변동에 따른 사회문제를 보여주는 프리즘과 같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 교회의 사례를 통해서 본다면, 앞으로 귀농·귀촌지역에는 개발주의 담론이 확장되면서 기존 주민과 이주민의 경제적 이권과 관련된 갈등이 증폭될 것이다. 그리고 제주에 정착한 이주자는 여러 변인으로 인해 ‘이주 실패’로 재이주할 가능성이 높고, 인구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 위험은 제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삶을 살아갈 주민들이 책임지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는 「바다교회」에서 드러난 문제가 제주사회의 개발정책이 난무한 제주사회에 대한 경고로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실천적 함의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사회변동과 종교조직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점에서 종교사회학적인 함의 역시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바다교회」 사례가 제주지역 개신교계를 전체를 대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이 연구의 한계라고 밝히는 바이다.

## 참 고 문 헌

### 연구논저

- 김민영·최현, 「제주도 이주의 현황과 전망」, 『耽羅文化』 50, 2015.
- 김석준·김준표, 『도박사회학 : 제주지역 도박 산업화 과정과 성격』,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6.
- 김성건, 「고도성장 이후의 한국교회: 종교사회학적 고찰」, 『한국기독교와역사』 38, 2013.
- \_\_\_\_\_,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한국교회」, 『신학과 사회』 29(1), 2015.
- 김신열, 「종교 활동 참여가 미주 한인 노인들의 정신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5, 2004.
- 김운용, 「북미 한인교회의 공동체 형성과 예배와 설교의 역할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28, 2011.
- 김정임·윤명희, 「제주영어교육도시 지역주민의 생활실태」, 『耽羅文化』 55, 2017.
- 김철규,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과 사회 변동』,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 김형길·김다니엘, 「한국 인구구조의 변화와 한국교회의 대응」, 『로고스경영연구』 14-4, 2016.
- 노치준, 『한국 개신교사회학: 한국 교회의 위기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1998.
-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주노회, 『제주기독교100년사』, 2015.
- 박노면, 「미주 한국인 사회의 문화구조」, 『교육학연구』 38(2), 2000.
- 박원석, 「런던지역 한인 이주민의 정착과정에서 한인네트워크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 2016.
- 박정환, 「초기 제주도 개신교 형성사 - 이기풍 선교사 이전 현지인 신앙공동체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39, 2013.
- 부혜진, 「귀농·귀촌인구 증가에 따른 제주도 촌락지역의 변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2), 2015.
- 스티븐 카슬·마크 J. 밀러, 한국이민학회 옮김, 『이주의 시대』, 일조각, 2014.
- 염미경, 「개발과 이주 그리고 주거지 분화 “해남촌” 사례를 통해서 본 제주사회 이주민 연구의 과제」, 『제주도연구』 35, 2011.
- \_\_\_\_\_, 「산업화시기 제주 이주자들의 정착과정과 그 특성: 전라도 출신 이주자들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학』 16, 2015.

오윤정 외, 「제주지역 정착이주민의 생활만족도 및 삶의 질 변화 연구」,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4.

원중권, 「아르헨티나 선교에 있어서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역할 연구, 선교와 신학」 16, 2005.

이상철, 「제주사회변동론 서설」,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 한울아카데미, 1995.

\_\_\_\_\_, 「제주도 개발정책과 도민 태도의 변화」,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 2』, 한울아카데미, 1998.

이원규,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의 위기와 희망』, kmc, 2010.

이정연, 「도시화와 종교시장 : 1960-2000년대 창신동지역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01, 2014년.

제주성내교회, 『제주성내교회100년사』, 2008.

제주성안교회, 『한국교회 첫 선교지, 살리는 공동체 : 제주성안교회 100년사』, 2008.

조발그니, 「종교공동체의 사회적지 역할과 영국, 프랑스, 독일 유학생의 적응」, 『종교연구』 64, 2011.

조성윤, 『창가학회와 재일한국인』, 한울, 2014.

한국은행 제주본부, 「인구 순유입이 제주지역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7.

## 2. 언론 및 인터넷자료

연합뉴스, “관광객 물리는 제주 ‘쓰레기 대란 막아라’ 비상”, 2016년 8년 22일자.

오마이뉴스, 「제주 ‘이주민-원주민’ 갈등, 급기야 해녀-다이버 ‘충돌」, 2016년 5월 28일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www.jdcenter.com)

제주기독신문, 「예장통합 제주노회 전체신자수 3만5758명 : 제주노회 ‘2015년도 교세 통계표’ 발표..... 전년도 대비 1015명 증가」, 2016년 8월 27일자.

\_\_\_\_\_, 「인구유입 따른 교세 자연증가 언제까지? 새 차원 복음 제시 등 교회 정착을 높여야」, 2016년 1월 6일자.

KBS뉴스, “난개발이 빛은 제주도의 슬픈 자화상”, 2016년 9월 15일자.

한겨레, “제주도 땅값이 치솟아 행복하십니까”, 2015년 1월 11일자.

호남지방통계청 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 변화를 읽다’ - 통계로 본 제주의 변화상」, 2016년 6월 29일자.

Abstract

# Changes and Dilemmas of Protestantism churches in Jeju by Social Change

- Focusing on the case of 「Bada church」

Yun, Myung-Hi\*·Kim, Sun-Pil\*\*

Since 2000, the Jeju society has undergone rapid changes due to the continuous influx of the domestic population, and social problems have arisen accordingly. We found that the social change and the religious organization were closely correlation, and reviewed the influence of the Jeju social change on Protestant churches in Jeju. therefore, we briefly reviewed the history of jeju social change and protestant growth, and analyzed the case of "BADA Church" in order to examine the situation later 2000.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Protestant churches in Jeju are directly and indirectly influenced by changes in Jeju society. Second, the Protestant churches in Jeju are now being influenced significantly by the people who have moved to Jeju later 2000. As part of the growth of some immigrant communities as mainstream forces, the expansion of individual churches is becoming a top priority for the Church. As a result, the structure of individual churches is becoming more and more hierarchical according to income level and social status. Third, the way of life of some immigrant people in the religious organization is based on the idea of

---

\* Lead Author, Completion of the Doctoral Course in Sociology at Jeju National Univ.

\*\* Corresponding Author, Postdoctoral Researcher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modern capitalism, unlike the motivations of immigrants hardly influenced by the recent capitalist values.

In particular, the case of “Bada church” is meaningful in that it shows the situation of Jeju society that has undergone rapid social change later 2000. It has a practical meaning in that it can discuss the implications of the causes and solutions of the problems faced by Jeju society. In addition, it can provide religious sociological implications as it enhances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hange and religious organization.

Key Words: Social Change, Protestant, Jeju Island, Immigration.

**교신 : 김선필** 134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비교문화연구소  
(E-mail : ksp0713@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7. 09. 15

심사완료일: 2017. 10. 03

게재확정일: 2017. 10. 04